

순천 효천고 투수 차명진 KIA 신인 1차 지명

“최동원 같은 무쇠팔 피칭 기대하세요”

순천 효천고 에이스 차명진이 2014년을 대표할 '아기호랑이'로 낙점됐다.

KIA 타이거즈가 1일 순천 효천고 에이스 차명진(우투우타)을 1차 지명선수로 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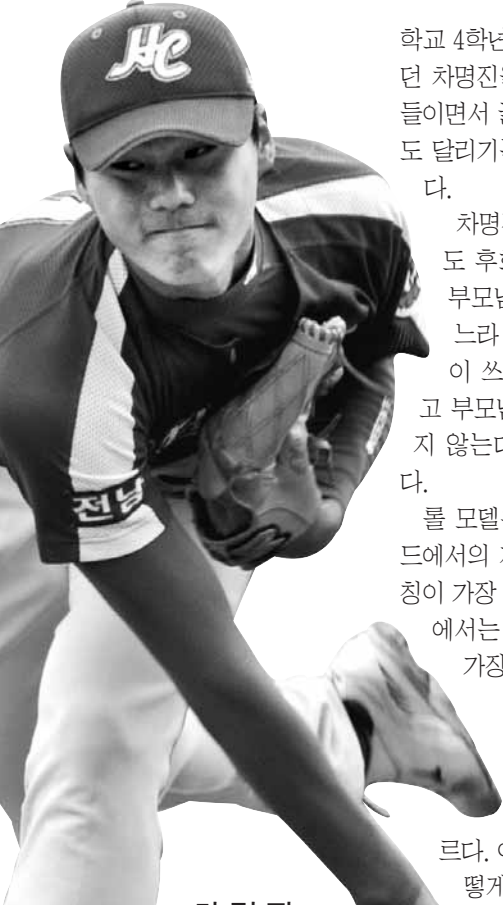
5년 만에 부활한 1차 지명의 주인공이 된 우완 차명진은 188cm의 장신으로 최고 148km의 강속구가 장점. 슬라이더와 커브, 변화구 제구와 투구 밸런스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

차명진은 “아직까지 실감이 나질 않지만 1차 지명을 받게 돼서 기분이 좋다. 프로에서 야구를 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이상하다. 프로에 가서도 내 꿈을 دنبال 자신은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과 감독, 코치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꼭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월한 신체조건과 스피드로 올 시즌 고교야구 대어로 꼽힌 선수지만 지난해 부진이 있었기에 이번 지명을 놓고 마음을 졸였다.

차명진은 “지난해 너무 부진해서 올 시즌 시작하면서 1차 지명은 생각도 못했다. 주말마다 그 전반기 군산상고 경기에서 완봉승을 한 뒤에 프로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감을 했을 정도다”고 말했다.

스승 사창기 효천고 감독이 우선 꼽은 장점은 투수로서의 기질이다.



차명진

순천복초와 이수중을 거친 차명진이 야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초등

학교 4학년 때. 학교 육상대표로 뛰던 차명진을 야구부 감독이 눈독을 들이면서 클러브를 끼게 됐다. 지금도 달리기엔 팀에서 상위권 수준이다.

차명진은 “야구를 하고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은 없다. 대신 부모님이 잠깐 뒷바라지를 하느라 많이 힘드셔서 그게 마음에 쓰였다. 1차 지명이 확정되고 부모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마음이 좋다”고 말했다.

롤 모델은 ‘무쇠팔’ 최동원. 마운드에서의 자신감과 지치지 않는 피칭이 가장 닮고 싶은 모습이다. KIA에서는 김진우 선배와의 만남이 가장 기대된다.

차명진은 “김진우 선배를 만나 커브를 배우고 싶다. 나도 커브를 던지기는 하지만 차원이 다르다. 어떻게 던지고, 승부는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다. 또 선동열 감독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된다. 선수시절 영상을 봤는데 놀라웠다. 공 던지는 포인트가 상당히 앞에서 나온다. 투수로서 최고의 풀이다. 프로에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남한테 지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있고 할 생각이야. 목표는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차명진’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며느리가 영국서 내조한다니 맘 편해”

기성용 아버지 기영옥씨

한혜진 만나보니 믿음 가

“시원은 한데 섭섭하지는 않아.” “폼잡남”이 된 아들 기성용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지난달 30일 광주 FC와 상주의 경기가 열린 광주 월드컵경기장에 기영옥 광주축구협회장이 자리를 했다. 이날 광주 FC 정원주 대표이사의 귀면식이 열리면서 바쁜 일정에도 경기장을 찾았다. 기 회장은 금호고 시절 고중승, 윤정환을 키워낸 감독이자 한국 축구의 대부님 기성용의 아버지로 유명한 인물. 이제는 배우 한혜진의 시아버지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역시 하루 앞둔 아들의 결혼식이었다. <관객기사 18면> ‘시원섭섭 하지 않나?’는 질문

에 기 회장은 “시원은 한데 섭섭하지는 않다”고 웃었다. “다 자기 인생이 있다. 애들도 자기 삶을 찾아가는 것이고 나도 이제 마음 한결 편하다”고 말했다.

아들의 고백을 들은 것은 지난 1월. 예비 며느리와 자리를 한 것은 3월이다. 기 회장은 “지난 1월 영국에서 20여 일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성용이가 축구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오붓하게 부자시간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을 꺼내더라. 아버지가 반대하면 만나지 않겠는데 일단 한번 만나보시면 마음이 정해지실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운동선수는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기 회장은 “처음 (며느리에게) 물

어본 게 해외에서 내조를 해야하는데 괜찮겠냐는 것이었다. 자신있게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했다. 또 영국에서 성용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니 오전 훈련을 하고 오후 일찍 귀가는 패턴이었다. 다음 날 오전까지 특별한 일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혼자 그렇게 보내는 게 안스럽기도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FC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기 회장은 “광주의 승부수는 ‘용병’이다.”

기 회장은 “지난해에는 내외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프란트 분위기도 좋아지고 선수들만 잘하면 되는 구조가 됐다”며 “시즌 초반에는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였는데 시즌이 거듭되면서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



이들 성용(왼쪽 시티)을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키운 기영옥 광주축구협회장과 어머니 남영숙씨.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 하지만 용병의 역할이 아쉽다. K리그에서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마지못해 용병의 결정력이 광주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네이마르, 세계 축구의 중심에 서다

브라질 컨페데컵 3연패

남미의 강호 브라질이 세계 챔피언 스페인을 완파하고 내년 월드컵 우승의 희망을 밝혔다.

브라질은 1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2013년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데레이션스컵대회 결승전에서 스페인을 3-0으로 이겼다.

공격수 프레드(플루미넨세)가 전반기 2번, 후반 2번에 골을 터뜨렸고 네이마르(21·바르셀로나)가 전반 44분에 골을 보냈다. 특히 네이마르는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3경기, 준결승

전, 결승전 등 전 경기에서 공격포인트를 올려 자신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FIFA는 네이마르를 이번 대회의 최우수선수상인 골든볼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실바를, 브론즈볼은 각각 스페인 미드필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바르셀로나), 브라질 미드필더 파울리뉴(코린티안스)에게 돌아갔다. 스페인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첼시)는 5골을 기록, 프레드(5골), 네이마르(4골)를 제치고 득점왕에 올랐다.

브라질은 월드컵 개최를 1년 앞두고 전조적으로 열리는 컨페데레이션

스컵을 3차례 연속으로 제패했다. 특히 FIFA 랭킹 1위이자 세계 축구의 흐름을 주도하는 스페인을 완파함으로써 내년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의 선전을 예고했다.

네이마르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집결한 이번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4경기에서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네이마르는 드리블 기술이 뛰어나고 슈팅이 정확한 데다가 공간을 자각하는 능력이 남다른 천재로 평가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호나우지뉴의 기술과 호나우두의 결정력을 겸비한 ‘괴물’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한다. <연습스



컨페데컵에서 뛰어난 활약상으로 ‘골든 볼’을 수상한 네이마르.

산행안내

- 7월 3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3일(수) 경남 거창 금원산, 07:50 백운동터라,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예술회관후문, 08:20 동광주IC입구 *다듬이캐 팹투어산악회 1 ☎ 011 646 3450, 011 259 0284

- 7월 7일(일) ▲광주스마트산악회 7월7일(일) 남덕유산 일선계곡, 영주체육관부근 상무정 앞 07:00, 무가사 07:10, 비엔날레주차장 07:30 *다듬이캐 팹투어산악회 1 ☎ 011 646 3450, 011 259 0284

- 7월 11일(목) ▲광주청록산악회 7월11일(목) 경남 함양 괴산산, 07:50 백운동터라,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예술회관후문, 08:20 동광주IC입구 *다듬이캐 팹투어산악회 1 ☎ 011 646 3450, 011 259 0284

- 7월 12일(금) ▲광주청록산악회 7월12일(금) 21:00 광주역 출발, 7월14일(일) 24:00 광주역 도착, 정동진·백담사·동명리·화진포의 성일정·이승만 별장·월정사·산성사·대관령 양떼목장·무궁화호 특별차 운행 (1박3일) ☎ 062 515 7788, 010 9715 1000

- 7월 13일(토) ▲광주다정산악회 7월13일(토) 산방산(경남 거제), 07:00 영주체육관 주차장 출발, 07:20 무등경기장 후문, 07:30 문예회관 후문, 07:40 비엔날레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열다섯번째 산행 7월 25일(목) / 모악산.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부동산공매공고. 동협외의 비어있는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공매합니다. 1. 공매물건의 내용 및 조건. (단위: 금액=백만원, 수량=m)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 제출공고). 주식회사 대영일렉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에이치비피너 (이하 "을"이라 한다)는 2013년 07월 01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가공시인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대상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 제출공고). 주식회사 대영일렉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에이치비피너 (이하 "을"이라 한다)는 2013년 07월 01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가공시인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대상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megabox. 영화가 살아나는 곳. MEGABOX.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상무.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하남.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KTF, LGT 멤버십 본인인 1000원 할인. 주말에 현대M포인트 | 인 4000포인트 적립. 2인까지 8000포인트 사용 (현대M카드로 결제시 적용). 단세 및 대관문의 1544-0070. www.megabox.co.kr